

“새만금 잼버리 부지 벨발 아닌 실트질 모래”

농어촌공 2018년 3월 시추조사 실시 결과

민주 이원택 의원, “매립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육지화 파행 책임을 부지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벨발이 아닌 실트질 모래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평균 준설심도 6.7미터로 시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벨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이며, 일

부지 자체가 섞인 세립질 모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한편,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는 타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잼버리부지 매립이 시작되기전부터 잼버리 부지는 이미



육지화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3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벨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데 확인된 만큼,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벨발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도의회 문건위,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3일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및 바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문건위는 익산 시내 북쪽 신규주택단지 공급을 위해 202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시찰·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및 바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어 익산시 종합운동장(부송동) 내 위치한 익산 바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익산 바다비 체육센터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600억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준공돼 2023년 2월에 개관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전라북도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사업 중에 건설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건설 현장 점검·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은 “익산 바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회통합 체육시설로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대응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김이재 도의원, 재난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 4)이 지난 13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

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조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과 파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SOC 예산 살리기 투쟁’ 책 속에

도의회소식지 ‘전라북도의회’ 가을호 발간 새만금 예산 복원 위한 삭발·단식 등 소개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4 가을호(제84호)’가 발간됐다.

84호에는 도의회가 지난 9월부터 발이고 있는 새만금 SOC예산 살리기 투쟁활동이 소개됐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이후 정부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을 부처에 대비 78% 삭감한데 항의해 9월 5일부터 23명의 의원이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제40회 임시회와 제40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도 정리됐다. 이 기간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과 인구정책·새만금 관

광정책 활성화 마련을 촉구했으며, 교육청의 폐교 관리와 동부권 교육 인프라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또, 전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전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도 농터지물 육상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44건의 조례와 지역현안과 관련한 한 국투자공사시장 망언 규탄 및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과 노인요양보호 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18건의 건의 및 결의안 내용도 소개됐다.

이밖에도 전북에듀페어와 임신출산지원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대 표여행지 등 읽을거리도 게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민



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에게 이러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만큼 도민께서 관심있게 살펴보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신청은 전화 (063-280-3066)로 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농어촌공 관리 저수지 재해대응 능력 향상 필요”

민주 윤준병 의원, “극한호우 등 대비 설계기준 강화해야”

지난달 리비아에 내린 열대성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리비아 2개 댐이 붕괴되어 사망자 최대 2만명, 실종자 1만명 이상, 이재민 4만명 등 피해면적 100㎢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의 재해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또한 30년이 상 경과한 저수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분기별 1회(연 4회)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총 12회)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총 949개소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호우 발생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영농편의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농업지원비, 수익 대비 2배로 상향해야”

민주 안호영 의원 “부과기준 10년 전에 만들어져 금융지주의 막대한 이익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ברי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8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2013년부터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 80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20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9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

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20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안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의 수익을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재원이지만, 농지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농지비 상향 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시민愛 의회
함께해요, 익산!